

아동문학 작품 속의 환경 이데올로기 분석: 초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장혜정

(서울가양초등학교)

An Analysis on the Environmental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The Case of Elementary Korean Textbooks

Hey-Jeong Chang

(Seoul Kayang Elementary School)

Abstract

The emphasis in environmental education for children should be on awareness, appreciation, and sensory experiences. By offering children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e elements of nature that surround them, teachers elevate children's comfort level and familiarity with the natural world. But many children have little contact with nature, because of urban living, hurried schedules, TV's attraction, and the low value most schools place on outdoor activities.

So, teachers have to expand the real out-of-door experiences into the classroom by sharing and making accessible books focusing on natur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Namely, quality children's literature is an excellent vehicle for extending a particular experience or introducing new ones. Building on outdoor experiences through stories encourages children to explore more deeply what they have observed and experienced—concepts are reinforced, new knowledge gained, vicarious experiences provided.

There are three-fold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ism, especially environmental ethics, and three-aspects of the history in children's literature. The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The environmental ideology in elementary Korean textbooks varies from 'ego-centrism-didacticism' to 'ecocentrism-fantasy'. This finding has implication for selecting child-

ren's books and teaching environmental contents in elementary school. Therefore teachers and parents need to get ready to receive ecocriticism.

Key words : environmental ideology, children's literature, content analysis

I. 서론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책임감 있는 환경행동의 형성이다(Hungerford & Volk, 1990).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식과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 하느냐의 문제는 학교 및 사회에서 전개되는 환경교육의 틀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학습자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며 환경 친화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 이 두 요인은 상호 배타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인지적 요인 못지않게 정의적 요인이 중시되어야 한다. 결국 이제까지 환경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행동의 원인은 생태학적인 지식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감수성¹⁾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적 감수성은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환경교육의 주요한 목표 영역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아이 때의 자극은 성인이 되어서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풍부한 감수성에 의해 수용되었던 자연은 성인이 되어서는 이미지와 상상력에 의해서 추체됨되면서 내면의 감성을 자극하곤 한다. 이러한 정서 작용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과 자연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한면희 외, 2002). 이러한 환경적 감수성을 중시한 연구들은 그 실행 방안으로 직접적인 자연 체험을 제안하고 있다(이영 외, 1999). 즉 지식의

전달이나 기능 습득은 교실 상황에서도 가능하지만 감수성 함양 교육은 환경 내에서 자연과 호흡하고 접촉하며 느끼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질 높은 체험이 모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경험의 폭을 좀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환경적 감수성은 환경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길러지지만 이와 더불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시를 읊거나 생태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강화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Parsons(2000)는 환경교육에서 문학이 가지는 의미를 “이야기의 힘”이라 부르며,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동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관계적 사고의 장을 열어주며, 탐구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Kupetz와 Twiest(2000)는 환경과 관련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통한 간접 경험은 학생이 자연을 직접 마주할 때 그 경험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최근 들어 환경교육계는 물론, 아동문학계, 유아교육계, 교과교육계에서도 문학 작품을 활용한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남상준, 1995; 최미숙, 1999; Schwarz, 1999; 김용섭, 2002; 김정원, 2003).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무조건 환경 관련 도서를 많이 읽도록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여러 경로를 통해 선정되고 권장된 아동문학²⁾ 작품이 어떤 주제나 환경관을 담고 있는가, 또한 그것이 환경적으로 건전한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

1) 감수성이란 사전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정의되는데, 환경교육 목적으로서의 감수성은 “지식, 가치, 태도의 기초로서, 환경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정서적 반응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에코페미니즘 중심의 그림책 비평(Schwarz, 1999),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생태주의 분석(심재성, 2000), 일반 생태 문학의 생태학적 인식 유형화(김용민, 2003), 생태적 관점에 의한 중등 국어 교과서 환경 단원 분석(김민숙, 2003) 등의 연구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동 문학을 대상으로 환경관의 유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 문학 작품 속의 환경 이데올로기³⁾를 분석하여 환경적 감수성을 중시하는 환경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

II. 분석 방법 및 분석 대상

1. 분석 방법

이데올로기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에게

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개념 규정 자체가 어렵고, 단순한 현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적인 접근으로는 서술 내용의 복잡한 의미나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 문학 작품 속의 환경 이데올로기를 추론하기 위하여 질적인 내용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질적인 접근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내용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틀이 필요하였고, 환경 이데올로기 차원과 아동 문학의 유형 차원을 구분하여 틀을 구안하였다.

우선, 환경론에 대한 논의는 인문·사회 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학문 영역 및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표 1>과 같이 인간 중심과 생태 중심으로 크게 구분하고 그 사이의 스펙트럼 상에 다양한 관점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구승희, 1995; 한면희, 1997; Palmer, 1998; 노경임, 1999)

이 중에서 의인화 된 다양한 화자와 비유가 존재하는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는 영역은 환경윤리학이라 할 수 있다. 이

<표 1> 환경론의 유형

영역 \ 환경관	기술지향주의	생태지향주의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	일원론적 세계관
자연관	정복관	조화관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학적 관점	지배적인 사회적 패러다임	새로운 환경적 패러다임
윤리학적 관점	인간중심적	전체주의적
자연의 가치	도구적 가치	내재적 가치

-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의 아동문학은 성인 작가 즉 아동문학가가 아동을 대상으로 창작한 문학 작품을 말한다. 작가는 성인, 즉 아동문학가에 한정되며 독자층은 아동을 비롯하여 동심을 가진 어른들까지 포함한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아동문학은 아동을 상대로 씌어진 모든 문학작품을 말한다. 창작물은 물론 번역물과 개작한 전래 작품까지 모두 포함된다. 작가는 성인 작가를 비롯하여 아동까지 포함하며, 독자층도 유아와 아동은 물론 청소년과 성인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작품 내용에 있어서 성인을 위해 창작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아동이 읽어 소화할 수 있는 작품이면 아동 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유창근, 1997).
-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사회적 실재에 대한 사상, 신념, 기본적인 관념 혹은 가치관의 체계(박무권·이혜영 역, 1985)라고 한다면, 환경 이데올로기는 환경에 대한 신념, 관념, 가치관이므로 환경관이라 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한 이데올로기인 환경론(environmentalism)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환경 이데올로기를 환경관, 환경론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에 따라 각 작품에서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존재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환경윤리학적 관점을 세분하여 인간 중심 관점에서 자연에 대한 도구적 가치만을 인정한다면 '인간중심', 동·식물과 같은 자연물에도 도덕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면 '생명 중심', 생명이 없는 자연물이라 하더라도 그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면 '자연 중심'이라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동일한 환경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더라도 아동 문학의 유형에 따라 그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틀의 다른 한 차원으로 아동 문학의 유형을 설정하였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아동 문학의 주요 성과물들은 시대 현실의 문제 곧 사회성으로부터 따로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는 '현실주의'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불행한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공동선에 대한 열망이었다. 따라서 지나친 강박으로 인한 편향의 문제점만 극복한다면, 사회성과 교육성의 특성을 지닌 현실주의는 우리나라 아동 문학의 명예로운 전통이요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실주의와는 달리 어린이는 현실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하고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이들에게 읽힐 문학은 아름다워야 하고, 꿈과 환상을 심어 주어야 하며, 교훈적이어야 한다는 '동심주의'와 '교훈주의'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고, 오늘날 상당수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서는 '판타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원종찬(2001)은 판타지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동등하게 혼을 나누어 주는 열림의 형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생태 위기의 대안으로서도 중요하며, 거침없는 상상력의 발동은 인간 중심의 가치 체계와 고

정 관념을 깨뜨린다고 하였다. 오늘날 판타지 열풍은 그 배경에 상업주의가 적잖게 깔려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대의 지배적인 가치 체계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즉 자연에 대한 정복을 감행해 온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방법의 하나로서, 모든 존재에게 말을 거는 판타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환경관 중 특히 환경 윤리학적 관점과 아동문학의 양상이라는 두 차원을 종합하여 구안한 분석틀은 <표 2>와 같으며, '인간중심-동심·교훈주의'부터 '자연중심-판타지'까지 9개의 속성 공간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분석틀은 환경 이데올로기의 명확한 구분 그 자체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개별 작품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확인하는 한편 전체적인 분포와 경향을 파악하는데 주안을 둔 것이다.

2. 분석 대상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성립과 발전 과정은 환경교육 전 단계로서 환경 운동 및 선구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던 태동기(1980년 이전), 분산적 접근에 의한 환경교육을 최초로 규정한 성립기(1981~1991년), 독립된 환경과를 설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제도화한 정착기(1992년 이후)로 나눌 수 있다(남상준, 1995). 이에 비해 아동 문학의 역사는 1900년대 전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이재철, 1983; 석용원, 1983; 박춘식, 1993). 따라서 분석 대상은 제1차 교육 과정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어 교과서에 게재된 작품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물론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은 국

<표 2> 아동문학 작품 속의 환경이데올로기 분석틀

환경관 \ 아동문학 양상	인간 중심	생명 중심	자연 중심
동심·교훈주의			
현실주의			
판타지			

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정된 자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한 채택 과정은 각 작품에 당대의 권위를 부여하며,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결국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분석하는 작업은, 아동 문학 작품에 반영된 환경 이데올로기에 주목하는 것임과 동시에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이 한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Ⅲ. 분석 결과 및 논의

지난 50여 년 동안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글들을 선별하여 환경 이데올로기를 분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초창기 국어 교과서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되던 환경에 대한 관심과 문제 인식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환경을 주제로 한 작품이 양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고 건전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 환경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양상도 다양하였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 중심의 가치를 내포하기도 하며, 그 가치를 전달할 때에도 교조적으로 주입하려 하는가 하면 판

타지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각 속성 공간별로 대표적인 작품과 그에 대한 분석 및 논의를 하겠다.

1. 인간중심-동심·교훈주의

60, 70년대는 5·16군사 정변, 경제 개발 계획 수립, 국민 교육 현장 선포, 새마을 운동 추진 등 국가 차원에서 사회 개선과 경제 개발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은 교육 과정에도 반영되어 유용성, 생산성 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글은 대체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 육성을 의도하여 도덕적, 교육적 견지의 교훈 주의 색채를 드러내는 생활 동화와 의인 동화가 자주 발견되었다.

아래 글에 나타난 흙은 인간에 의한 피지배 대상이다. 흙은 보잘 것 없는 자신의 상황을 훌륭히 참고 견디 인간의 유용한 도구가 됨으로써 스스로 흠족해 한다. 그러나 더 이상 땅을 단순한 재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가공하는 '죽은' 물질로만 볼 수는 없다. 땅은 살아 있는 유기체로, 그래서 건강할 수도 아플 수도, 그리고 부상당할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존재인 것이다(김명식 역, 1999).

어느 시냇가에 한 줌의 흙이 있었습니다. 아무데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질척질척한 흙이었습니다. 그렇지

<표 3> 아동문학 작품 속의 환경이데올로기 분류

환경관 아동문학 양상	인간중심	생명중심	자연중심
동심·교훈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줌의 흙(1974) ○ 소녀와 늑대(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한 안경(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한줌(2001)
현실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여행(1963) ○ 달가스(1976) ○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까치와 느티나무(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를 심은 사람(1997) ○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2002)
판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 속 바람(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등 속의 제비집(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박사의 소중한 경험(2002)

만, 그 혹은 혼자 생각으로 저를 썩 훌륭한 것으로 여기고, '언제든지 나의 훌륭한함을 사람들이 알아 줄 때가 오리라. 그 때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뛰어난 일을 하겠다.'고 굉장한 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중략) 것처럼 꾸준히 참아가며 괴로움을 겪은 보람으로 얻어진 자기의 모습, 그것은 아름다운 모양이어야 할 터인데, 발강고 보기 흉한, 보잘 것 없는 화분이었습니다. (중략)

“사람들은 왜 나를 이리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왜 모두가 나만 보고 있을까요?” 곁에 있던 화분이 말했습니다. “그걸 모르세요? 당신은 꽃 가운데서도 왕이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백합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있던 혹은 그제야 만족하였습니다. 모든 꿈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를 만든 이에 감사 드렸습니다. 한 줌의 흙도 남에게 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여야 할 구실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흙그릇일망정, 그러한 보배를 제 속에 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1974, 4-2, 한줌의 흙).

다음 사례는 삼촌과 조카 관계인 소년과 소녀를 등장시켜 동심의 세계를 보여 주고자 한다. 본래 이 작품은 197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에이빈트 은손의 단편 선집에 실려 있던 것이다. 몇가지 단어 수정을 제외하면 거의 원문 그대로 교과서로 옮겨졌다. 물론 이 글은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등장 아동들의 대화 속에 묘사된 늑대에 대한 이미지는 문화적 편견을 담고 있으며, 두려움의 대상임과 동시에 축출하거나 처단해야할 대상으로 비추치고 있다. 일찍이 환경가치교육을 강조한 연구들은 아동문학 속에서 동물을 묘사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환경적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내용이 많음을 지적하였다(남상준 역, 1994; 최윤정, 2000; 김서정 역, 2001). 따라서, 환경교육에서는 아동 문학 작품 속에서 중상모략을 당하는 동물들을 찾아내고, 그 동물들이 생태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게 해야 한다.

“늑대 이야기를 좀더 해 줄 거야, 안 해 줄 거야? 안 해 주면 내가 숲 속의 큰 늑대를 불러 온다.” 율테가 위협하였다. 그렇게 나오면 나는 어느 정도 버티는 척하다가, 율테가 늑대를 부르면 숨는 시늉을 한다. 그리고 잠시 후에 겁먹은 소리로 이제 늑대가 왔느냐고 묻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오늘 밤은 어쩐지 그러기가 싫었다. 어쩌면 나만큼 큰 아이가, 그것도 버

스가 바로 집 앞에 서는 시내에 살면서 숲 속의 늑대 따위를, 그야 정말 나타난다면 기절해 넘어질 노릇이지만, 어린 조카 앞에서 겁낸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만은 놀이 규칙을 무시하고 소리쳤다.

“난 늑대 따위는 눈꼽만큼도 무섭지 않아!”

“늑대는 커다란 수건 두 장을 합친 것만큼이나 큰데?”

“그래도 무섭지 않아. 나도 목욕 수건 두 장 합친 것만큼 크니까 말이야. 이놈의 늑대, 나타나기만 하면 불고깃감으로 썰어 버릴 거야.”(2002, 6-1, 소녀와 늑대)

2. 인간중심-현실주의

다음은 물을 의인화한 환상 동화이다. 그러나 이 의인화가 자연친화적 감정 이입을 의도한 것 이라기보다는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상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가 어딘가 물어 보았더니, 저수지라고 한다. 여기서 도회지로 가는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이 맑은 물 그대로 수도관을 지나서 조용히 도회지로 가는 길과, 또 하나는 이것보다 더 큰 강물이 되어,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도회지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좀 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싶어서 둘째 길을 골랐다.

조용히 흐르던 우리는 별안간 커다란 철관에 들어가면서 막 아래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정신이 아찔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천천히 강으로 흐르고 있었다.

“아까 거기가 수력 발전소야.”하고, 곁에 있는 동무가 말해 주었다(1963, 3-1, 물의 여행).

또한, ‘자연을 아름답게’라는 단원에서 제시된 아래 글은 덴마크의 달가스라는 인물에 대한 전기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당시 정권의 ‘선 성장, 후 분배’ 그리고 ‘선 개발 후 환경보전’이라는 경제 개발 전략, 민족 주체성 함양과 국민 교육 헌장 정신이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환경교육은 자연 보호 운동과 구별되지 않은 채 대 국민 홍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국민의 공동된 인식을 이끌어 내거나 설득력 있는 체계를 가지기 어려웠다.

달가스는 공병 사관이였다. 그리고, 토지의 성질과 식물을 연구한 과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조국의 부흥은 먼저 나무를 심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나무가 무성한 나라는 반드시 부흥하고,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역사를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중략) 그런데, 자연은 달가스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는 않았다. 바람도 막고 재목으로도 쓰려던 달가스의 희망대로 전나무가 자라나지 않은 것이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성장을 멈추고 만다. 재목은 커녕 바람을 막을 정도도 되지 않았다. (중략)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도로 찾자."고 한 달가스의 소원은 성취되었다. 그 후, 덴마크 국민은 평화로운 국가 건설에 힘쓴 결과, 이제와 같은 세계 제일의 농업 축산국으로 발전하여,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달가스의 공적은 나무를 심는 데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공적은 실망에 빠진 국민에게 힘을 주고 나라를 부흥시킨 정신적 교훈에서 찾을 수 있다(1976, 6-1, 달가스).

최근 들어서는 생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 파괴를 다룬 작품이 다수 눈에 띈다. 죽어가는 숲, 오염된 강물, 시멘트로 덮인 땅, 자동차와 소음 공해 등의 환경 문제를 분노와 걱정,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묘사하고 고발하는 작품들이 여기에 속한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 생태계 파괴 상황을 알려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려는 현실 비판적 관점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생태계의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생태학적 인식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적인 자연 파괴의 실상 묘사에 치중하여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원인에 대한 종합적 성찰을 결여하고 있거나 원인을 아주 약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김용민, 2003).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주장하는 글의 형태로 전달하는 '최열아저씨의 지구촌 환경이야기'도 이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가 많이 오지만, 대부분 여름 한철에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겨울과 봄에는 늘 가뭄에 시달린다. 그리고 땅이 좁은데 사람은 많아서,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아주 적지. 땅을 아무리 깊이 파도 지하수까지 말라 버려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곳도 있어. 하천이 말라서 물고기들이 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수돗물이 끊기기도 한단다. 농사지를 물이 부족해지면서 농민들 사이에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 이웃 논에 고인 물을 몰래 자기 논으로 빼돌리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도 있더구나(2002, 6-2,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3. 인간중심-판타지

'바람 속 바람'의 주인공 돌개바람은 회오리바람, 소나기바람이 환경오염 주범인 인간을 혼내 주겠다는 말에 당황해 하며 "저는 부수는 바람보다 살리는 바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이러한 발상은 작가가 아동문학의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권선징악, 해피엔딩, 막연한 희망을 강조하고 은연중에 바람(자연)의 목소리를 빌어 인간의 이기심과 재해 극복 의지를 노래한다고도 볼 수 있다. 자연물을 의인화한 환상 동화라고 해서 반드시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 중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돌개바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만약 인간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돌개바람은 그제서야 바다 선생님의 뜻을 깨닫고 소리쳤다. 성난 황소의 발길질은 멀쩡한 외양간도 부수지만, 언 땅을 쟁기질하며 이듬해 씨앗이 자랄 터를 고른다. 태풍도 마찬가지이다. 목은 삭정이를 날려 보내고 고인 구정물을 행구어 내는 것이 참다운 태풍이 할 일인 것이다. 돌개바람은 숲 틈새로 두 손을 설렁설렁 흔들며 삭정이를 부러뜨렸다. 기울어진 고깃배를 바로 앉히고 바다 밑을 끌고루 쟁기질했다. 팔뚝에 힘을 모아 붉은 물과 끈끈한 기름띠도 살살 걷어 냈다. 겹겹이 가라앉은 상처를 걷고 새살이 돋을 자리를 살폈다. (중략)

다시 김포 쓰레기 매립지이다. 여전히 모든 것이 썩거나 썩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곳에 밀리 남쪽 바닷가 마을로부터 가느다란 실바람이 날아들었다. 이 실바람은 새똥에 묻은 민들레 씨앗을 떨어뜨리고 쓰레기더미 위에서 잠들었다. 아마 이듬해 봄이 되면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뿌리내리던 민들레가 여기 쓰레기더미 위에도 피어날 것이다(2002, 6-1, 바람 속 바람).

4. 생명중심-동심·교훈주의

아동문학 형성 초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익숙한 방식 중의 하나는 동식물을 의인화하여 꿈과 낭만을 노래하는 동심주의 형식이다. 따라서, 시대를 불문하고 탈역사적, 비현실적 맥락에서 동·식물에 관심을 갖고 대화하며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작품이 많다.

기남이는 안경을 쓰고 산을 두리번두리번 바라보았습니다. “똑딱 똑딱, 영차 영차.” 어디선지 집이라도 짓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 소리도 들립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모두 나무와 눈에 덮인 땅 속에서 들려 오는 소리였습니다. 기남이는 하도 이상해서 나무 앞으로 바짝 다가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라 죽은 것과 같은 나무 껍질 속에서는, 아까 그 나무들이 물을 빨아올리느라고 야단들입니다. 나무 가지에서는 봄에 틀 움을 만드느라고 법석입니다. (중략)

기남이는 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애가 겨울 동안 산에 가서 놀지 못하더니, 꿈을 다 꾸었구나.”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참, 재미있는 꿈이다. 그렇지만, 그 이상한 안경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정신을 차려서 잘 보면, 이상한 안경을 쓴 것처럼, 나무와 풀이 일하는 모양도 볼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62, 4-1, 이상한 안경)

5. 생명중심-현실주의

‘까치와 느티나무’의 극중 배경은 한승원의 환상적 생태 소설인 ‘연꽃바다’와 유사한 설정을 갖는다. 여기서도 작가는 새나 나무에 사람의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화 기법을 쓴다. 두 작품 모두가 가족관계를 생태계의 축소판으로 본다. 가족 내에서나 생태계에서나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의 유기적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이 관계가 깨지면 가족도 생태계도 모두 파괴되는 것이다. 이 글은 환경오염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리기는 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성찰하거나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느티나무는 마을 어귀에 우뚝 서 있었다. 나이가 육백이 넘고, 동치가 어른 팔로 여섯 아릅거나 되는 장대한 나무였다. 느티나무는 작은 산이나 마찬가지로였다. 그 품에 많은 새들이 모여 살았다. 새들의 종잡거림이

늘 나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런데 그 느티나무 아래로 넓은 길이 난다는 소문이 들려 왔다.

드디어 새 길이 완성되고 자동차가 느티나무 그늘을 갈아뭇개며 질주하기 시작하였다. 자동차는 날마다 늘어났다. “아이 시끄러워. 이 냄새!” 날마다 잠을 설치자, 새들이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새들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다. 다정한 아침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여보, 저……. 우리도 이사를 가야겠어요. 아끼까치들이 자꾸 속이 메스꺼린대요. 그리고 가까워서 눈을 뜰 수도 없대요.”

느티나무는 아까부터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 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베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엄마까치는 아기들을 데리고 느티나무를 떠났다(1998, 6-1, 까치와 느티나무).

6. 생명중심-판타지

‘신호등 속의 제비집’은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대안까지 제시하는 판타지 형식을 보여준다.

어느덧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어.

그 날은 날씨가 하도 좋아서 아침 일찍 나가 보았더니, 네 거리가 온통 북적대고 있더군. 길 양편으로 차들이 줄줄이 서 있고, 사람들도 발 하나 들여 놓을 틈 없이 붐비고 있었어. 그리고 하늘에는 자그마한 예쁜 풍선이 여러 개 떠 있고, 뉴스를 전해 주는 때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 ‘제비 가족 강남 보내는 잔치’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어. 신통하게도 제비네 일곱 식구 모두가 가지런히 전깃줄아 나와 앉아 있더군. 시장이 나와서, 그 동안 이 거리에서는 가벼운 교통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인사말을 했어. 그러자 박수가 쏟아졌어. 제비들은 신호등 주위를 빙빙 맴돌았고, 어린이들이 합창을 하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불렀지.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누나’(1996, 3-1, 신호등 속의 제비집).

7. 자연중심-동심·교훈주의

비교적 최근 들어서 생태 중심의 전체주의적 환경관을 담은 작품들이 등장한다. 이것은 환경

관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1992년 이후 환경운동의 발전과 환경위기 심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이 국가와 기업 부문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구도완, 1994), 같은 시기에 환경교육도 학교 교육 속에 제도화됨으로써 안정된 기반을 갖게 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생태학적 인식과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래 글은 1960년대 작품 '한줌의 흙'과 제목은 유사하나 환경 이데올로기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선동적인 구호와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각과 촉각에 기대어 대지, 어머니, 여성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1세기의 특성을 규정하면서, 생명의 시대, 영성의 시대, 여성의 시대라는 말을 종종 들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사실 근대화 작업과 더불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원주민 여성들이 자연에 기대어 사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었다. 이른바 세계화의 기치를 달고 다국적 기업들이 전쟁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지구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켜낼 유일하면서도 최후의 전사인 '원주민 여성'은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와 할머니였던 것이다. 한 마디로 이 작품은 자연중심주의와 에코페미니즘적 향기를 은근히 풍긴다.

"할머니, 서울은 흙이 적어서 깨끗해요." 할머니께서는 유미의 뺨을 어루만지셨다. "이 할머니 손이 까칠까칠해서 싫지?" 유미는 고개를 저었다. "왜? 농사일을 하지 않은 보들보들한 손이 더 좋을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한테서 나는 냄새가 엄마 화장품 냄새보다도 더 좋아요." 유미가 할머니 품으로 파고들며 어리광을 피웠다.

"이 할머니한테서 나는 것은 흙 냄새뿐인데, 화장품 냄새보다 좋단 말이나?" "할머니 몸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흙 냄새라고요? 흙에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 유미가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말하였다. "그렇고말고. 흙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란다. 흙에서 곡식도 나고, 채소도 나고, 과일 나무도 나고, 풀도 나고, 꽃도 나지. 흙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2001, 4-1, 흙한줌)

8. 자연중심-현실주의

다음 글은 미국 서부 지역에 거주하던 두아미쉬-수쿠아미쉬 족의 추장 시애틀의 연설문이다. 여기에서 시애틀 추장은 자연에 근거한 소박한 언어, 이미지, 비유를 통하여 존재의 신비 및 인간의 삶터와 창조주와의 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시애틀 추장은 '어머니로서의 대지' 혹은 '자아로서의 대지'에 주목하여 인간이란 자연 속의 먼지나 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환기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에게는 대지를 지키고 보호할 거룩한 임무가 주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남상준, 1995).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신선한 공기와 반짝이는 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신성합니다. 빛나는 솔잎, 모래 벌판, 어두운 숲 속 안개, 맑고 나지막한 소리로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추억 속에 신성한 것들로 남아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나 있는 길은 우리 인디언의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백인은 죽어서 벌들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태어난 고향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아름다운 땅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바로 우리 인디언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또,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요, 사슴, 말, 위대한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산마루, 신선한 즙,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망아지, 그리고 인간……. 그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2002, 5-1,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

다음 이야기의 화자는 알프스 산악 지대를 걸어서 여행하다가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혼자 살아가는 양치기 엘제아르 부피에를 만난다. 그는 황폐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몇십년 동안 양을 키우고, 벌을 치면서 나무를 심어 왔다. 나무를 심은 지 40년 후, 황무지는 거대한 숲이 되고, 마을이 생기고, 웃음이 돌아온다.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인간을 믿지 못하게 된 화자가 그로부터 얻은 희망은 독자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양치기 노인은 구멍마다 도토리를 하나씩 심고는

정성스럽게 흙으로 덮었지. 그래, 양치기 노인은 매일 그렇게 도토리를 심고 있었던 거야. 내가 노인에게 “할아버지네 땅인가요?”하고 물었더니, “아니, 내 땅은 아니요.” 하더구나.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나는 다시 그 지방을 찾았지. 그 때의 황무지는 조금도 변한 게 없었어. 그런데 저 멀리 아득히 먼 곳에 잿빛 아지랑이 같은 것이 용단처럼 펼쳐져 있는 게 아니겠니? 그래, 떡갈나무 숲이었던 거야. 산은 온통 도토리가 자라서 된 떡갈나무로 울창했어.

그 뒤 떡갈나무 숲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채소밭도 일구고 목장도 만들었지. 하지만, 아무도 양치기 노인 혼자서 그 숲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 그저 누군가 옛날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어렵듯이 짐작할 뿐이었지.

(1997, 5-1, 나무를 심은 사람)

9. 자연중심-판타지

요즘 학생들은 판타지에 몰입한다. 판타지의 의미는 현실 도피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이상과 현실의 벽을 넘나들며, 결국 그들이 다시 돌아와 발 디딜 현실을 버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 현실 문제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즉 판타지는 현실에 바탕을 둔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꿈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방 안이었다. 바깥가랑이를 내려다보니, 불방울 하나 묻지 않은 채 말짱하였다. ‘휴, 진짜였으면 좋았을 텐데…….’ 명철이는 들판에 대한 아쉬움으로 안절부절못하다가 뒤쪽 베란다로 나왔다. 바깥 마른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화분 속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가느다란 풀 한 포기만 반쯤 허리를 숙인 채 버티고 있었다. ‘아, 살아있는 풀이다!’ 명철이는 재빨리 수도꼭지 물을 받아 왔다. 물을 듬뿍 주고 풀잎이 고개를 들기를 기다렸다. 손으로 살며시 만져 보았다. 보송보송한 아기 손처럼 부드러웠다.

이튿날, 7일간의 도전을 무사히 마친 명철이에게 신문 기자가 물었다. “폐쇄된 공간에서도 인터넷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나요?”, “네, 살 수는 있어요.” 명철이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한 마디 덧붙였다. “땀방울을 말할 수 있는 자연의 바람과 살아 숨쉬는 풀 한 포기가 함께 있는 세상이라면 더욱 살맛이 나겠지

요.”(2002, 6-1, 컴박사의 소중한 경험)

IV. 결론 및 제언

사람들은 생태 위기를 단순히 과학적,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으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차원에만 국한하여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논의일 것이다.

생태계의 파괴는 부분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 삶의 구조와 생활 방식 및 문명 전체의 기본 성격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생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의 총체적인 성찰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종교, 교육, 세계관 등에서 지금까지 통용되어 오던 기본 원칙들을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기초로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문학이 환경교육 목적으로서의 감수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실제로 아동문학 작품 속에 환경 이데올로기가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심·교훈주의, 현실주의, 판타지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아동의 현실과 꿈을 담아내는 아동문학은, 환경 이데올로기 차원에 있어서도 인간 중심부터 생명 중심, 자연 중심에 이르기까지 관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의 작품 선정 과정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환경 관련 도서를 선정하고 환경교육적으로 활용할 때 이러한 환경 이데올로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 위기 시대에 어른들에게는 비평 정신이 필요하다. 인간 중심적이고 체제 순응적이며 왜곡된 관점을 고착화하고 상업적으로 포장만 그럴듯한 아동문학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생태 지향적인 아동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안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실제로 아동이 그러한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는지, 환경 친화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구도완 (1994). 한국환경운동의 역사와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승희 (1995). **에코필로소피**, 서울: 새길.
- 김명식 역 (1999). **환경윤리의 이론과 전망**, 서울: 자작아카데미.
- 김민숙 (2003). 생태적 관점에 의한 제 6차 및 제 7차 중등 국어교과서 환경 단원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서정 역 (2001).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1·2**, 서울: 시공주니어.
- 김용민 (2003). **생태문학-대안사회를 위한 꿈**, 책세상: 서울.
- 김용섭 (2002). 한국아동문학세미나자료: 환경교육에 있어서 아동문학의 역할, **계간 문학춘추**, 2002년 가을호, 214-220.
- 김정원 (2003). 문학을 활용한 유아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6), 95-115.
- 남상준 (1995). **환경 교육론**, 서울: 대학사.
- 남상준 (1999). 체험중심 환경교육을 통한 감수성의 함양, 초등학교 환경교육, 이렇게 하자, **진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학술초청강연회 자료집**.
- 남상준 역 (1994). **초·중등학교에서의 환경가치교육**, 서울: 배영사.
- 남상준 외 (1999). **환경교육의 원리와 실제**, 서울: 원미사.
- 노경임 (1999) 환경관 분석틀의 개발 및 환경관에 따른 인식특성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정일 (1994).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서울: 민음사.
- 박부권·이혜영 역 (1992). **교육과 이태올로지**, 서울: 한길사.
- 박춘식 (1993). **아동문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 석용원 (1983). **아동문학원론**, 서울: 학연사.
- 심재성 (2000).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생태의식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종찬 (2001).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유창근 (1997). **현대 아동문학의 이해**, 서울: 동문사.
- 이영 외 (1999).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환경부.
- 이재철 (1983). **아동문학의 이론**, 서울: 형설출판사.
- 최미숙 (1999). 국어과 교육에서의 환경교육, **환경교육**, 12(1), 40-63.
- 최윤정 (2000). **슬픈 거인**, 서울: 문학과 지성사.
- 한면희 (1997). **환경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 한면희 외 (2002). 생태적 합리성 및 감수성 제고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환경교과서 평가에 관한 연구,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연구소.
- Hungerford, H. R. & Volk, T. L. (1990). Changing Learners Behaviors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1(3), 8-21.
- Kupetz, B. N. & Twiest, M. M. (2000). Nature, Literature, and Young Children: A Natural Combination, *Young Children*, 55(1), 59-63.
- Palmer, J. A. (1998).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Theory, Practice, Progress and Promise*. London: Routledge.
- Parsons, S. C. (2000). Environmental literature: The Power of Story, *Green Teacher*, 63(3), 5-10.
- Schwartz, E. G. (1999). Exploring Children's Picture Books through Ecofeminist Literacy, Smith, G. & Williams D. Eds., *Ecological Education in Action: On Weaving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